펭크 작 "프로이센의 희망"

뢰머부부 작 '메디아스프레를 침몰시키자'

그림에 비친 韓·獨 '분단의 아픔'

광주시립미술관 5·18 30주년 맞아 25일부터 한달간 '전쟁과 평화전'

한국과 독일은 전쟁과 분단이라는 유사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전쟁의 참담함과 분단의 슬픔은 고스란히 현대 회화에 녹아있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박지택)이 오는 25일~4월25일 독일 현대 미술의 거장 펭크(A.R. Penck), 니나 뢰머(Nina Romer)와 토어스텐 뢰머(Torsten Romer) 부부작가(이하 뢰머부부), 독일에서 활동 중인 광주 출신 작가 세오(32·본명 서수경)가 참여하는 '21세기 전쟁과 평화'전을 연다.

5·18민중항쟁 30주년을 맞아 기획된 이번 전시에서 이들은 전쟁과 평화를 주제로 한 4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펭크(A.R. Penck)는 전후 독일의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이른바 '독일 신표현주의' 미술의 선두주자다. 단순한 구성과 몇 개의 가느다란 선들로 이루어진 그의 작품들은 강압과 갈등으로 점철된 냉전시절의 역사적 모순을 보편적으로 보여준다.

현대미술 거장 펭크·광주 출신 재독작가 세오 등

냉전시대의 역사적 모순 담은 40여 작품 선보여

특히 이데올로기 대립을 주제로 한 작품들은 분단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많은 공감을 주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새로운 환영이 너희를 파괴한다'(1983년작) '지하운동'(2007년) '프로이센의 희망'(1999년) 등 전쟁과 분단 속에서 살아야 했던 독일 민중의 삶이 담긴 작품을 선보인다.

뢰머부부는 대도시의 일상을 사진으로 포착한 후, 사진 위에 다시 유화로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일상의 흔한 모습을 찍어 현실과 초현실의 경계를 허무는 화면 구성으로 다양한 삶의 모습을 전달해 주고 있다.

길거리 축제 현장을 담은 작품인 '맨발로 들어오지 마'(2008년) 등의 작품을 전시한다.

세오는 '전쟁에 대항하여'(Crossway against the war)를 주제로 전쟁의 참상과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작품을 발표하면서 국내외 무대에서 주목받는 작가이다. 지난해 독일 쾰른에 세워진 아트호텔에 단독으로 작품을 설치하는 작가로 선정돼 화제를 모았다. 독일 마이클 슐츠 갤러리의 전속 작가로 활동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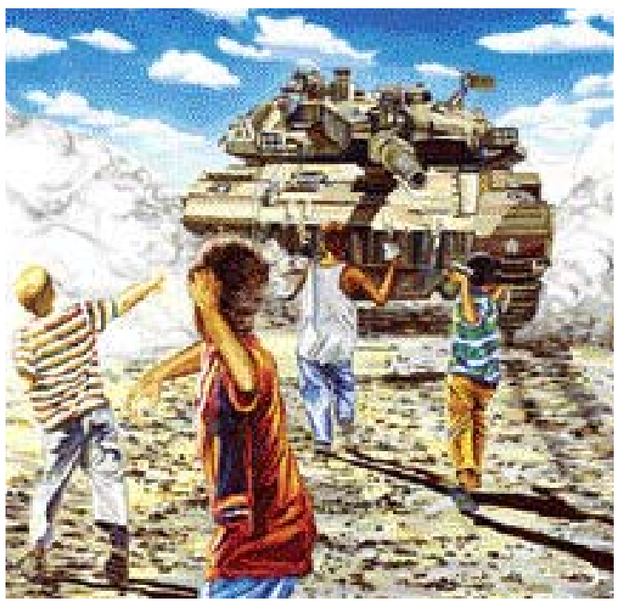
주로 동양화의 바탕 위에 페인팅과 한지 콜라주를 합성한 작품들로, 동양적인 색감과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전쟁' 연작은 가로, 세로 각 250㎝ 크기의 대작들로 총이나 탱크, 군인 등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 자욱한 먼지 속에서 밝은 원색과 군인의 지친 얼굴 표정을 통해 전쟁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기운을 포착했다.

탱크를 향해 돌을 던지는 어린이 4명을 등장시켜 저돌적으로 전쟁을 반대하는 '그림자 전투'(2009년)와 어린 군인들이 가득 쌓인 기관총을 배경으로 춤을 추는 '분노의 포도'(2009년)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시립미술관 관계자는 "한국과 독일 작가들의 사회·정치적 관점을 통해 현시대의 다양한 문제점을 바라보는 작품이 대거 출품됐다"면서 "광주항쟁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62-613-7142.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세오 작 '그림자 전투'

하나님의교회 메시아 오케스트라

광주서 또 한번의 감동 무대

25일 염주체육관…칠레 지진피해민돕기 자선공연

가족과 이웃사랑을 실천해온 하나님의교회 메시아 오케스트라가 빛고을 광주에서 또 한번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회(총회장 김주철) 메시아 오케스트라가 오는 25일 오후 7시 광주시 서구 화정동 염주체육관에서 '제11회 순회연주회'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연주회는 갑작스런 재난으로 절망에 휩싸여 있는 칠레 지진 피해민 돕기 자선공연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날 연주회에서는 베토벤 심포니 제5번 '운명'과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등을 연주한다.

또 '그리운 금강산', '목련화' 등 귀에 익은 가곡과 창작곡 '하늘 천상 옥좌는', '홍해 바다를 건너라', '모세의 지팡이' 등도 선보이다.

이어 현악 4중주, 목관 5중주, 남성 4중창단과 함께 'Amazing Grace', '거룩한 성'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통해 감동을 선사한다.

하나님의교회 광주서구교회 박종오목사는 "이번 연주회는 뜻하지 않은 재난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비탄에 잠긴 칠레 지진 난민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고자 마련됐다"며 "지구촌 이웃에 사랑을 전하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마음가득 감동을 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메시아 오케스트라는 2000년 창단된 100인조 관현악단으로 지금까지 이웃돕기 자선공연, 정기연주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앞서 2월21일에는 부산 KBS홀에서 아이티 지진피해 난민을 돕기 위한 연주회를 개최했다. 문의 062-376-1925.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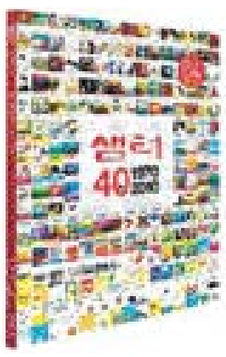
우리 이웃들의 행복 40년 담았어요

월간 '샘터' 창간 40돌 맞아

월간 '샘터'가 창간 40주년을 맞았다.

'평범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교양지'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1970년 창간됐던 '샘터'는 샘터 출판사와 함께 40년을 이어오며 평범한 우리 이웃의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왔다. 특히 '샘터'는 삶에 대한 통찰과 따뜻한 시선을 담은 칼럼과 연재 소설, 동화로 인기를 끌었다.

지난 11일 입적한 법정스님 역시 샘터와 오랜 인연을 맺은 작가. 법정스님은 1979년부터 1980년까지 '고사순례'(古寺巡禮)를, 1980년부터 1996년까지 '산방한담'(山房閑談)을 120여 개월간 연재했다.



이외에도 시인 이해인 수녀, 소설가 최인호, 동화작가 고 (故) 정채봉, 고(故) 장영희 서강대 교수 등도 필자로 참여했다.

창간 40주년을 맞아 '샘터'는 '내가 만드는 행복, 함께 나누는 기쁨'이라는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4월호를 40주년 기념호로 꾸몄다.

40주년 기념호는 특집 '다시, 행복!'을 통해 각계 인사 40명에게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지 물었다.

또, '샘터'는 역대 표지 481개를 한데 모아 40주년 기념호 표지로 꾸몄으며 다음 달 11일까지 샘터 표지 그림 작가 40명이 참여한 전시 '책과 작가가 만나다'를 대학로 샘터 갤리리에서 연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